

#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Da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Elderly

하경분, 송선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Kyoung-Poon Ha(kyoungpoon@naver.com), Sun-Hee Song(shsong@hoseo.edu)

### 요약

본 연구는 노인들의 일상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증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는 일상적 스트레스 중에 가족관계와 건강문제, 그리고 상실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지지 중에는 정서적 지지와 친구지지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정서적 지지 강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 중심어 : | 노인 | 일상적 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 심리적 복지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da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elderly people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in an effor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promotion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people was under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f their family relations, health problems and sense of loss among the subfactors of daily stress. As for the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and support from friend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at.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boost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they should be helped to cope with various stress that they face in daily routine life, and a variety of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bolster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In addition, the kind of community programs in which they can participate with their friends should be prepared, and how to provide them with better emotional support should carefully be studied.

■ keyword : | Elderly | Daily Stress | Social Support | Psychological Wellbeing |

## 1.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노인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고령화 사회(10.3%)로 진입한데 이어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체인구 중 14.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생애주기에서 노년기를 확장시키며,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차원의 노인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인의 문제는 핵가족화,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 사회와 단절, 역할 상실, 질병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노인이 되면 신체, 생리적인 능력의 감퇴로 건강수준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질병과 죽음에 대한 취약성이 현저해진다. 또한 자녀의 출가나 자신의 은퇴로 인해 수입의 감소, 가족관계의 변화, 역할의 상실 등이 초래된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자존심이 위축되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절감하게 되며, 인생의 어느 단계보다 주관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스트레스 증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은 심신기능의 쇠퇴가 정신기능보다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마음은 젊지만 신체가 마음대로 움직여 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고독에 대한 불안, 건강 상실에 대한 불안, 삶의 보람에 대한 상실, 경제적 불안, 정신활동의 기능저하 및 적응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고민에 빠지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2].

이처럼 노년기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쇠퇴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인생시기보다 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생활스트레스는 노인의 행동과 삶의 선택에 있어 부적응을 증가시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3]. 이러한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 행복감 또는

생활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감정[4]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을 측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성공적인 노후와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심리적 복지 중 부정적인 감정을 예방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의 삶의 생활스트레스를 예방해주고, 부정적인 감정에 직접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는 생애주기 중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욕구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며, 노인 스스로 자립생활로의 전환을 지지해주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우울 및 자살까지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나 배우자 상실을 경험하는 노인이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절친한 사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5].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적 지지는 건강 및 사회심리적 안정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6]. 사회적 지지는 생활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문제로부터 정서적 관심, 위로, 실질적인 도움, 이해 등의 교환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인들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7][8]하게 되어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왔다. 또한 노인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전무하며, 김미애(2012)[9]와 이정임(2012)[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 유형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 유형을 지지유형(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과 지지원(자녀지지와 친구지지)으로 구분하여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일상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 살펴봄으로써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증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감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복지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상대적 영향은 어떠한가?

## 2. 이론적 고찰

### 2.1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중대한 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생활 속에서 가족관계, 건강, 경제문제와 같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중대한 사건에 의한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증상에 더 영향을 준다[11].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변화, 은퇴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 사회 중심으로부터 역할 전환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변화, 배우자와 주변의 상실에 따른 심리적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2]. 노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야기되는 문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하나의 문제가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힘들며, 많은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13], 고령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14].

이러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15]으로 노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가 노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16].

### 2.2 노인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타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이다 [17].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이

나 감정이입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믿음과 유용한 지지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을 의미한다[18].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은퇴 이후의 삶에서 사회적·심리적 능력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노인들의 역할과 책임은 사회 중심으로부터 점점 줄어들어 가정이나 이웃 또는 친구 등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관계망이다[19].

노년기는 일반적으로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며 경제적 활동력이 약화되고, 배우자의 상실로부터 경험되는 심리적 환경적의 변화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원만한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감소 또는 완화시킴으로써 노인의 위기나 변화를 겪게 되었을 때 심리적 적응을 도와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와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해 준다[20].

노인에게서는 자녀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가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자녀와의 지지는 물질적 지지와 관련이 높고, 친구와의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관련이 있으며, 노인의 생활만족도[21]에서 자녀의 정서적 지지와 친구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가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김효심(1994)[22]은 사회적 지원으로 자녀와 친구의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연구하였는데, 도구적 지원은 경제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의 의존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정서적 지원은 감정적인 유대 및 안정감과 신뢰 등 노인 특유의 심리적 의존성을 해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노인들은 가족에게서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어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가족들에게서 물질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 역시 가족에게서 많이 받고 있지만 친구에게서도 가족 못지않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 2.3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지각하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나 만족감 또는 주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 주관적이고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으로,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 혹은 인생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정도를 말한다[24]. 심리적 복지감이란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삶의 과정에 있어 성공적인 적응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심리적 복지감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정서적 경험 등을 중심으로 된 것이다. 또한 심리적 적응은 한 개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가 반영되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가 하는 다차원적인 측면이기도 하다[25]. 이신숙, 이경주(2002)[20]는 노인들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 우울감과 행복감은 구분하고, 행복감은 심리적 안정과 적응상태이고 우울감은 어떠한 일에 대한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안정신(2005)[26]은 심리사회 발달적 관점에서 생애과정 발달적 관점을 적용하여 노년기 심리적 복지감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연구를 하였는데, 노년기의 생성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된 남녀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지역의 복지관을 이용하고 기본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일상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신체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연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이것을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무작위 추출을 통해 남녀노인 총 29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 2일부터 2012년 1월2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 직접 지역 복지관을 방문하여 일대일의 개별면담형식으로 설문지의 각 문항을 읽어 주면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이 73.3%로 남자 노인 26.7%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71~80세가 4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70세 36.1%, 81세 이상 15.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상이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초졸 24.9%, 무학 23.2% 순이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노인이 53.0%로 그렇지 않은 노인 47.0%보다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76	26.7
	여	209	73.3
연 령	60~70세	103	36.1
	71~80세	137	48.1
	81세 이상	45	15.8
학 력	무학	66	23.2
	초졸	71	24.9
	중졸 이상	148	51.9
배 우 자 유 무	생존	151	53.0
	사별	134	47.0
거주형태	혼자	102	35.8
	노부부만	98	34.4
	장남부부와	16	5.6
	자녀와 함께	67	23.5
	친척 및 기타	2	0.7
자 녀 수	0~1명	35	12.3
	2~4명	206	72.3
	5명 이상	44	15.4
경제상태	부족하다	105	36.8
	그럭저럭하다	150	52.6
	충분하다	30	10.5
건강상태	나쁘다	105	36.8
	그저 그렇다	117	41.1
	건강하다	63	22.1
사회활동	월 1~4회	53	18.6
	월 5~10회	35	12.3
	월 10~15회	18	6.3
	월 16~20회	33	11.6
	월 21회 이상	146	51.2
종 교	있다	218	76.5
	없다	67	23.5
계	285	100.0	

거주형태별로는 혼자 사는 노인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부부만 34.4%, 자녀와 함께 23.6%, 장남부부와 5.6%, 친척 및 기타 0.7%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2~4명인 노인이 72.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명 이상 15.4%, 0~1명 12.3% 순이었다. 경제 상태별로는 그럭저럭한 노인이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족하다 36.8%, 충분하다 10.5%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건강상태별로는 그저 그런 노인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나쁘다 36.8%, 건강하다 22.1%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별로는 월 21회 이상이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월 1~4회 18.6%, 월 5~10회 12.3%, 월 16~20회 11.6% 순이었다. 종교 유무별로는 종교가 있는 노인이 76.5%로 그렇지 않은 노인 23.5%보다 많았다.

### 3.2 측정도구

#### 3.2.1 일상적 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는 윤현희, 김명자(1994)[27]의 노인의 스트레스 척도를 참고로 하여 이신숙, 이경주(2002)[20]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위영역은 가족관계 7문항, 건강문제 4문항, 경제문제 5문항, 상실감 2문항, 주거문제 3문항의 5개 영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3점 Likert형 척도로, 마음이 '매우 상했다' 3점, '마음이 상했다' 2점, '마음이 별로 상하지 않았다' 1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9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역별 신뢰도는 가족관계 .84, 건강문제 .77, 경제문제 .84, 상실감 .70, 주거문제 .78로 나타났다.

#### 3.2.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김효심(1994)[22]의 사회적 지원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지원으로 자녀와 친구의 지원과 지지유형으로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였고,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정말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자녀의 지지 .95, 친구의 지지 .94, 도구적 지지 .88, 정서적 지지 .94 이었다.

#### 3.2.3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척도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는 개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Ryff(1989)[25]의 심리적 복지감의 척도를 안정신(2005)[26]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7로 나타났다.

#### 3.2.4 배경변인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형태, 자녀수,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활동수준: 활동내용과 관계없이 활동횟수로 측정, 종교 유무 등의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노인들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을 알아보기 위해 t-test(검증)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감 차이

#### 4.1.1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차이

노인들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이 3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1.50으로, 노인들은 일상적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차이분석

구 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76	1.42	0.37	-2.19*	0.030
	여	209	1.53	0.39		
연령	60~70세	103	1.44	0.37	2.15	0.119
	71~80세	137	1.54	0.39		
	81세 이상	45	1.55	0.42		
학력	무학	66	1.65	0.41	9.58***	0.000
	초졸	71	1.56	0.41		
	중졸 이상	148	1.41	0.35		
배우자 유무	생존	151	1.44	0.37	-3.12**	0.002
	사별	134	1.58	0.40		
거주 형태	혼자	102	1.60	0.40	5.30**	0.006
	노부부만	98	1.43	0.39		
	장남부부, 자녀 및 기타	85	1.48	0.36		
자녀 수	0~1명	35	1.53	0.31	0.47	0.626
	2~4명	206	1.49	0.39		
	5명 이상	44	1.55	0.47		
경제 상태	부족하다	105	1.67	0.41	19.49***	0.000
	그럭저럭하다	150	1.43	0.36		
	충분하다	30	1.28	0.26		
건강 상태	나쁘다	105	1.72	0.40	40.72***	0.000
	그저 그렇다	117	1.46	0.34		
	건강하다	63	1.23	0.23		
사회 활동	월 10회 이하	88	1.44	0.35	1.52	0.220
	월 11~20회	51	1.53	0.39		
	월 21회 이상	146	1.53	0.41		
종교	있다	218	1.52	0.39	0.84	0.400
	없다	67	1.47	0.38		
전 체		285	1.50	0.39		

\* p<.05, \*\* p<.01, \*\*\* p<.001

성별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19, p<.05$ ).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은 노인일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은 노인일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9.58, p<.001$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배우자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3.12, p<.01$ ).

거주형태별로는 혼자 사는 노인이 일상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노부부만 사는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5.30, p<.01$ ).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5명 이상인 노인이 일상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2~4명인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았으나 자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경제

상태별로는 부족한 노인일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경제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9.49, p<.001$ ).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일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40.72, p<.001$ ). 사회활동별로는 월 11회 이상 하는 노인이 월 10회 이하 하는 노인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 유무별로는 종교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 4.1.2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76으로, 노인들은 사회적 지지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분석

구 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76	2.63	0.75	-1.70	0.091
	여	209	2.80	0.78		
연령	60~70세	103	2.84	0.74	1.01	0.364
	71~80세	137	2.72	0.73		
	81세 이상	45	2.68	0.94		
학력	무학	66	2.54	0.84	3.63*	0.028
	초졸	71	2.80	0.77		
	중졸 이상	148	2.84	0.73		
배우자 유무	생존	151	2.79	0.70	0.68	0.498
	사별	134	2.72	0.85		
거주 형태	혼자	102	2.46	0.78	14.76***	0.000
	노부부만	98	2.83	0.67		
	장남부부, 자녀 및 기타	85	3.04	0.77		
자녀 수	0~1명	35	2.50	0.91	2.45	0.088
	2~4명	206	2.78	0.74		
	5명 이상	44	2.87	0.78		
경제 상태	부족하다	105	2.53	0.81	10.65***	0.000
	그럭저럭하다	150	2.83	0.71		
	충분하다	30	3.19	0.70		
건강 상태	나쁘다	105	2.54	0.81	7.70**	0.001
	그저 그렇다	117	2.84	0.71		
	건강하다	63	2.98	0.74		
사회 활동	월 10회 이하	88	2.77	0.78	0.66	0.520
	월 11~20회	51	2.85	0.81		
	월 21회 이상	146	2.71	0.76		
종교	있다	218	2.76	0.76	-0.10	0.922
	없다	67	2.77	0.82		
전 체		285	2.76	0.77		

\* p<.05, \*\* p<.01, \*\*\* p<.001

성별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은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63, p<.05).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거주형태별로는 장남부부, 자녀 및 기타가족과 사는 노인이 다른 노인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였고, 혼자 사는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4.76, p<.001).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많은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나 자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경제 상태별로는 충분한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경제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0.65, p<.001).

건강상태별로는 건강한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70, p<.01). 사회활동별로는 월 11~20회 하는 노인이 다른 노인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였고, 월 21회 이상 하는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 유무별로는 종교가 없는 노인이 있는 노인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4.1.3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차이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50으로, 노인들은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71~80세 노인이 심리적 복지감이 가장 높았고, 81세 이상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심리적 복

지감이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상인 노인이 심리적 복지감이 가장 높았고, 초졸인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낮았으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형태별로는 장남부부, 자녀 및 기타 가족과 사는 노인이 심리적 복지감이 가장 높았고, 혼자 사는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낮았으며,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79, p<.05).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적은 노인일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4.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차이분석

	구 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76	3.54	0.61	0.70	0.486
	여	209	3.48	0.74		
연령	60~70세	103	3.50	0.68	0.66	0.516
	71~80세	137	3.54	0.74		
	81세 이상	45	3.40	0.66		
학력	무학	66	3.43	0.66	2.69	0.070
	초졸	71	3.38	0.71		
	중졸 이상	148	3.59	0.72		
배우자 유무	생존	151	3.52	0.69	0.48	0.634
	사별	134	3.48	0.72		
거주 형태	혼자	102	3.38	0.70	3.79*	0.024
	노부부만	98	3.49	0.72		
	장남부부, 자녀 및 기타	85	3.66	0.68		
자녀 수	0~1명	35	3.62	0.71	2.19	0.114
	2~4명	206	3.52	0.71		
	5명 이상	44	3.31	0.66		
경제 상태	부족하다	105	3.43	0.67	1.91	0.149
	그럭저럭하다	150	3.50	0.69		
	충분하다	30	3.72	0.87		
건강 상태	나쁘다	105	3.42	0.67	4.51*	0.012
	그저 그렇다	117	3.44	0.67		
	건강하다	63	3.73	0.79		
사회 활동	월 10회 이하	88	3.40	0.71	1.32	0.269
	월 11~20회	51	3.52	0.75		
	월 21회 이상	146	3.55	0.69		
종교	있다	218	3.50	0.70	-0.09	0.925
	없다	67	3.51	0.73		
전 체		285	3.50	0.71		

\* p<.05

경제 상태별로는 충분한 노인일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으나 경제 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건강상태별로는 건강한 노인일수록 심리적 복지감

이 높았으며,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F=4.51, p<.05$ ). 사회활동별로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일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 유무별로는 종교가 없는 노인이 있는 노인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 4.2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

##### 4.2.1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

노인들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

구 분	가족 관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상실감	주거 문제	일상적 스트레스
심리적 복지감	-0.237*** (0.000)	-0.212*** (0.000)	-0.163** (0.006)	-0.212*** (0.000)	-0.120* (0.042)	-0.277*** (0.000)

\*  $p<.05$ , \*\*  $p<.01$ , \*\*\*  $p<.001$

심리적 복지감은 가족관계( $r=-.237, p<.001$ )와 건강문제( $r=-.212, p<.001$ ), 경제문제( $r=-.163, p<.01$ ), 상실감( $r=-.212, p<.001$ ), 주거문제( $r=-.120, p<.001$ ),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 $r=-.277,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노인들은 가족관계와 건강문제, 경제문제, 상실감, 주거 문제,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4.2.2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

구 분	사회적 지지 유형		사회적 지지원		사회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자녀 지지	친구 지지	
심리적 복지감	0.045 (0.452)	0.263*** (0.000)	0.152* (0.010)	0.188** (0.001)	0.208*** (0.000)

\*  $p<.05$ , \*\*  $p<.01$ , \*\*\*  $p<.001$

심리적 복지감은 도구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서적 지지( $r=.263, p<.001$ ) 및 자녀지지( $r=.152, p<.05$ ), 친구지지( $r=.188, p<.01$ ), 그리고 사회적 지지( $r=.208,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노인들은 정서적 지지 및 자녀지지, 친구지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4.3 일상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4.3.1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들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심리적 복지감			
	b	$\beta$	t	p
가족관계	-0.271	-0.167	-2.566*	0.011
건강문제	-0.152	-0.142	-2.070*	0.039
경제문제	0.031	0.028	0.377	0.706
상실감	-0.135	-0.135	-2.157*	0.032
주거문제	-0.016	-0.011	-0.174	0.862
constant	4.319		26.026***	0.000
$R^2$	0.095			
F	5.867***			
(p)	(0.000)			

\*  $p<.05$ , \*\*\*  $p<.001$

약 9.5%( $R^2=.095$ )의 설명력을 지니며,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는 가족관계( $p<.05$ )와 건강문제( $p<.05$ ), 그리고 상실감( $p<.05$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노인들은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건강문제 스트레스, 그리고 상실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는 가족관계( $\beta=-.167$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건강문제( $\beta=-.142$ ), 상실감( $\beta=-.135$ )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 4.3.2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4.3.2.1 사회적 지지 유형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사회적 지지 유형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약 8.1%( $R^2=.081$ )의 설명력을 지니며,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는 정서적 지지( $\beta=.328,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노인들은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사회적 지지 유형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심리적 복지감			
	b	$\beta$	t	p
도구적 지지	-0.111	-0.125	-1.868	0.063
정서적 지지	0.248	0.328	4.916***	0.000
constant	2.874		18.822***	0.000
$R^2$	0.081			
F	12.389***			
(p)	(0.000)			

\*\*\* p<.001

4.3.2 사회적 지지원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사회적 지지원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사회적 지지원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심리적 복지감			
	b	$\beta$	t	p
자녀지지	0.072	0.107	1.755	0.080
친구지지	0.129	0.157	2.575*	0.011
constant	2.958		19.208***	0.000
$R^2$	0.046			
F	6.746**			
(p)	(0.001)			

\* p<.05, \*\* p<.01, \*\*\* p<.001

약 4.6%( $R^2=.046$ )의 설명력을 지니며,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는 친구지지( $\beta=.157, p<.05$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노인들은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4.4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먼저, 노인들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학력, 함께 사는 가족, 경제상태,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데, 이는 노인의 스트레스적 생활경험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노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최형임, 최현탁, 송인욱(2009)[2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노인일수록 다른 노인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껴질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난 김미애(201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상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복지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인들에게 일상적 생활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감을 감소시키며,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증대시킴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와 건강문제, 그리고 상실감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과 가족과의 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중에는 정서적 지지와 친구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는데, 이는 노인들이 자녀의 의존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부양의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빚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유형을 지지유형(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과 지지원(자녀지지와 친구지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각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 고려될 때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들의 일상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증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노인들은 일상적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았으며, 여자 노인과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 혼자 사는 노인, 경제상태가 부족할수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일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둘째, 노인들은 사회적 지지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장남부부, 자녀 및 기타 가족과 사는 노인, 경제상태가 충분할수록, 그리고 건강한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노인들은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으며, 장남부부, 자녀 및 기타 가족과 사는 노인과 건강한 노인일수록 다른 노인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다.

넷째, 노인들은 가족관계와 건강문제, 경제문제, 상실감, 주거 문제,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낮았다. 또한 노인들은 정서적 지지 및 자녀지지, 친구지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다.

다섯째, 일상적 스트레스 중에 가족관계와 건강문제, 그리고 상실감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지지 중에는 정서적 지지와 친구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실정이므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회방문 진료 서비스제를 도입하여 신체적 노화로 인해 수반되는 스트레스를 효율적인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실행이 요구된다.

둘째, 노인들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이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한 대상자별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 중에는 정서적 지지와 친구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들이 소단위 그룹으로 상호간에 친밀한 교류를 가지며, 정서적 지원 및 함께 할 수 있는 지지그룹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활동의 참여를 권장하고, 여가 활동 시설과 같은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다소 미비한 실정에서 노인들의 일상스트레스의 하위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지지원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므로, 후속과제로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의 여러 변인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증진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1]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2011.
- [2] 김익균, 김인수, 이형진, 정용민, 최윤신, 노인복지론, 교문사, 2008.
- [3] T. Farley, A. Galves, L. M. Dickinson, and M. D. J. D. Perez, "Stress, coping and health: a comparison of Mexican immigrants, Mexican-Americans, and non-Hispanic whi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Vol.7, No.3, pp.213-220, 2005.
- [4] R. Veenhoven,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24, pp.1-34, 1991.
- [5] D. Sutherland and E. Murphy, "Social support.

- Among elderly in two community programs," *J Gerontol Nurs.*, Vol.21, No.2, pp.31-38, 1995.
- [6] J. Cassell,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104, No.2, pp.107-123, 1976.
- [7] 고승덕, 손애리, 최윤신,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 제6권, 제1호, pp.145-162, 2001.
- [8] 이평숙, 이영미, 임지영, 황라일, 박은영, "노인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 *대한 간호학회지*, 제34권, 제3호, pp.477-484, 2004.
- [9] 김미애, *노인이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0] 이정임, *사회적 지지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1] 윤가현, "노년기의 고독감: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 *한국노년학*, 제14권, 제1호, pp.17-32, 1991.
- [12] 정미경, 이규미,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낙관주의 및 적응유연성의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제30권, 제2호, pp.629-642, 2010.
- [13] 서현미, 하양숙, "노인의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인지정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간호학논문지*, 제11권, 제1호, pp.39-58, 1997.
- [14] 이소정, *성격, 스트레스 및 대처 그리고 노년기 우울간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5] 백경숙, 권용신, "노인이 지각한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노인복지연구*, 제28권, 제2호, pp.379-402, 2005.
- [16] 이해자, 신명옥, 신윤아, "대도시 여성노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인구학적 관련변인", *노인복지연구*, 제22호, pp.304-315, 2003.
- [17] S. Cohen and H. 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No.2, pp.99-125, 1993.
- [18] I. G. Sarason and B. R. Sarason,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pplication*, Dorrecht,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1985.
- [19] 진기남, 조성남, 윤경아, "농촌노인들의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15권, 제2호, pp.1-13, 1995.
- [20] 이신숙, 이경주,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2호, pp.1-20, 2002.
- [21] 김효심, 신효식,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pp.66-73, 1995.
- [22] 김효심,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정도, 사회적 지원에 따른 의 생활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23] 김정엽, 이제모, "노인교육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48호, pp.7-29, 2010.
- [24] 원영희, "동·별거 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15권, 제2호, pp.97-116, 1995.
- [25] C. D. Ryff and C. L. M.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9, No.4, pp.719-727, 1995.
- [26] 안정신, "중·노년기 미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전 생애 발달과정의 부모자녀 관계와 생산감 발달의 영향", *한국노년학*, 제25권, 제2호, pp.245-266, 2005.
- [27] 윤현희, 김명자, "남녀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한국노년학*, 제14권, 제1호, pp.17-32, 1994.
- [28] 최형임, 채현탁, 송인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스트레스적 생활경험과 절망감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43호, pp.183-202, 2009.

저 자 소 개

하 경 분(Kyoung-Poon Ha)

정회원



- 1994년 8월 : Western Illinois University(B.M.)
- 2007년 2월 : Temple University (M.M.T.)
- 2013년 2월 : 호서대학교 박사수료
- 201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

교 강사

<관심분야> : 노인심리, 노인교육, 노인음악치료

송 선 희(Sun-Hee Song)

정회원



- 1990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문학사)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문학석사)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교육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교육심리, 노인심리, 노인교육